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인세인 박, 《아방가르드는 포기하지 않는다》
 Insane PARK, *Avant-Garde Does Not Surrender*



인세인 박, 《아방가르드는 포기하지 않는다》(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25) 전시전경.

전시작가 : 인세인 박(Insane PARK, b. 1980)
 전시제목 : 아방가르드는 포기하지 않는다(Avant-Garde Does Not Surrender)
 전시일정 : 2025 년 10 월 16 일(목) – 12 월 6 일(토)
 전시장소 :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종로구 율곡로 85) B1F
 전시작품 : 13점(영상, 설치, 프린트 등)

[작품 이미지 및 전시전경]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WOOJWALz2YZcLGHZFafrrS6lmbUgDxT2?usp=drive_link

[문의]

박미란 팀장, M. 010-6768-8812 / E. miran.park@arariogallery.com

황보영 담당, M. 010-7297-3597 / E. boyoung.hwang@arariogallery.com

자료목차	1. 전시개요	-----	2
	2. 전시주제	-----	2-3
	3. 작품소개	-----	3-4
	4. 전시전경	-----	4
	5. 작가소개	-----	5
	6. 전시서문	-----	6-8
	7. 작가약력	-----	9-10

1. 전시개요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은 2025년 10월 16일(목)부터 12월 6일(토)까지 **인세인 박**(Insane PARK, b. 1980) 개인전 《**아방가르드는 포기하지 않는다**》를 개최한다. 인세인 박은 미디어와 이미지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를 바탕으로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이는 통념적 시각 체계와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작업을 이어왔다. 그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고정된 이미지들을 분석하고 해체하며, '본다'는 행위를 통해 인지하고 사유하는 인간의 본질과 한계를 가감 없이 드러낸다. 영상, 설치, 회화, 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의 작업은 단순한 형식적 실험을 넘어, 동시대 사회를 규정하는 정치적, 문화적 구조를 전복적으로 드러낸다.

2. 전시주제

이번 전시에서 인세인 박은 반달리즘을 매개로 아방가르드의 태도를 다시 소환한다. 반달리즘은 자기 모순적이고 반항적인 행위이지만, 동시에 기존의 체계를 부정하며 새로운 시각과 담론을 여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하다. 인세인 박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허구적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 모션그래픽, 그리고 SNS 라이브 방송 형식을 차용한 작업들을 통해 제도권 미술의 권위와 안전망을 허무는 실험을 이어간다. 낡은 건물 위에 겹쳐진 그래피티, 작품 위 흩뿌려진 메세지 등은 그에게 단순히 파괴의 행위라기 보다 권위와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 읽힌다. 그는 낙서와 훼손의 행위를 재정의의 과정으로 바라보며, 기존 질서와 위계를 흔드는 동시에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본다. 인세인 박은 그 속에서 현실의 무력함, 허무함, 공허함을 직시하면서도 단지 절망에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농담과 자기모순, 그리고 실행의 태도에 집중하며 예술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소한의 균열과 발화를 모색한다. 실제 전시장 벽면과 작품 위에 개입하는 메시지들은 모두 이러한 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 건물 위 그래피티처럼, 그의 이미지들은 체계의 균열 속에서 목소리를 낸다.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지하 1층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예술을 통한 저항의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며, 반달리즘을 통해 드러나는 파괴와 창조, 권위와 저항의 양가적 힘을 탐구한다. 전시는 이처럼 체제 내부에서 작동하는 반달리즘의 아이러니를 드러내면서도 예술이 여전히 행동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내포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의 실내외를 그래피티로 뒤덮이게 연출한 <포스트 반달리즘>(2022), 불타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모습을 담은 <버닝 다운 더 뮤지엄>(2022) 등 인세인 박의 이전 작업부터, 새롭게 공개되는 대형 다채널 영상 설치 <버닝 다운 더 갤러리즈>(2025)를 만나볼 수 있다. <버닝 다운 더 갤러리즈>는 '갤러리즈(Galleries)' 글자 내부에 성냥을 가득 채워 실제로 불태우는 퍼포먼스 영상을 글자 구조물과 함께 설치한 작품이다. 영상은 '거짓말'을 뜻하는 'Lies'에 먼저 불을 붙이는 장면으로

시작해, 이어 알파벳 전체가 차례로 타오르는 과정을 담고 있다. 또한 퍼포먼스 영상에서 사용된 <아마추어 반달러를 위한 일회용 마스크>(2025)와 더불어 <아마추어 반달러를 위한 일회용 마스크 사용설명서>(2025)까지 그가 지금까지 구축해온 예술적 태도와 더불어 새로운 실험의 지점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폭넓게 조명한다.

3. 작품소개

※고화질 이미지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사용시 다음의 저작권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 Insane PARK.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대표이미지



인세인 박 Insane PARK
<아마추어 반달러를 위한 키트>

Amateur Vandal K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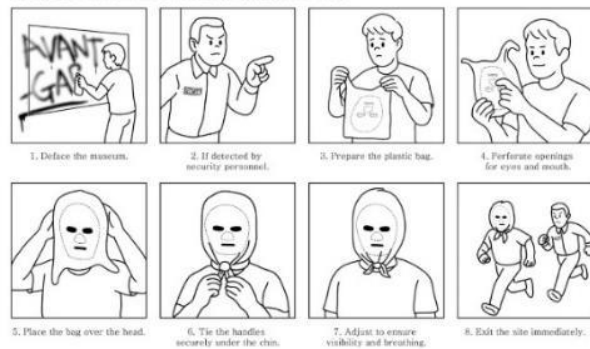
2025

스프레이 캔, 종이에 프린트(매뉴얼 & 패키지),

유에스비, 비닐봉지

21 × 29.7 × 7(h) cm

DISPOSABLE MASK FOR AMATEUR VANDALS: INSTRUCTION MANUAL



인세인 박 Insane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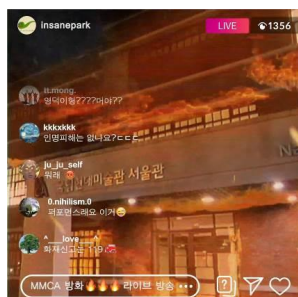
<아마추어 반달러를 위한 일회용 마스크 사용 설명서>

Disposable Mask for Amateur Vandals: INSTRUCTION MANUAL

2025

종이 위 디지털 프린트, 액자

100 × 75 cm



인세인 박 Insane PARK

<버닝 다운 더 뮤지엄> *Burning Down the Museum*

2022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00'55"



인세인 박 Insane PARK

<포스트 반달리즘>

Post Vandalism

2022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0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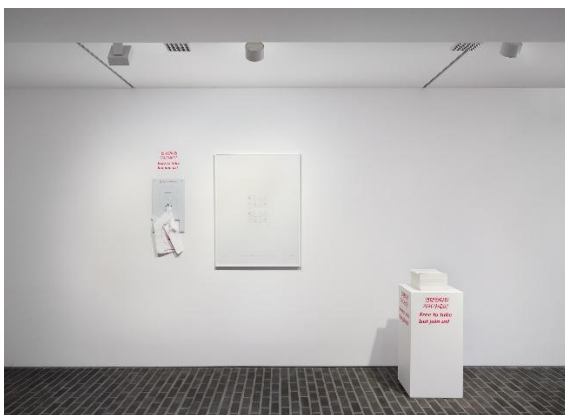
인세인 박 Insane PARK
 〈예스, 시스템〉 YES, SYSTEM
 2024
 네온
 40 x 37 cm



인세인 박 Insane PARK
 〈포스트 반달리즘(BACC)〉 Burning Down the Museum
 2024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04'48''

4. 전시전경

※고화질 이미지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사용시 다음의 저작권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 Insane PARK.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인세인 박, 《아방가르드는 포기하지 않는다》(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25) 전시전경.

5. 작가소개



인세인 박은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서울, 한국, 2025; 2020; 2014; 2011), 아라리오뮤지엄 동문모텔 II(제주, 한국; 2018), M17(파주, 한국, 2017), 아트 프로젝트 CZ(상하이, 중국, 2015), 영은미술관(경기도 광주, 한국, 2012)등 국내 다수의 기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경기도미술관(안산, 한국), 수원시립미술관(수원, 한국), 경남도립미술관(창원, 한국), 백남준아트센터(용인, 한국), 사비나미술관(서울, 한국),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수원, 한국), 대안공간 루프(서울, 한국), 보안여관(서울, 한국)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2024 년 반누르그 컬래버레이티브 아트앤컬처(랏차부리, 태국), 2016-17 년 스튜디오 M17(파주, 한국), 2016 년 아키요시다이 국제예술창작촌(야마구치, 일본), 2015-16 년 경기창작센터(안산, 한국), 2011-13 년 영은창작스튜디오(경기도 광주, 한국) 레지던시에 입주하여 작업했다. 2013 년 제 2 회 에트로 미술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6. 전시서문

아방가르드는 포기하지 않는다.

권혁규 큐레이터

‘아방가르드’라는 말은 특정 시대와의 급진적 이탈과 단절을 우선적으로 환기한다. 현대미술의 맥락에서 이는 전례에 기대 현재를 해석하는 아카데미즘을 넘어서고, 예측 불가능한 관객과의 관계를 거부하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또 제도 내부로의 완전한 포섭을 거부하고, 동시대 유행의 흐름에 종속되지 않으며, 이해 불가능한 상태로 남으려 했다. 이러한 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모더니즘 미술이 강조한 순수성과 자율성을 입증하는 핵심 조건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동시에 실패로 규정되기도 한다. 역사적 아방가르드는 예술과 삶의 통합이라는 근본적 과제를 실현하기보다 배반했으며, 순수주의적 미학 혹은 자본과 시장이라는 강고한 제도 속으로 편입됨으로써 전위적 잠재력을 상실했다는 이유이다. 급진적 단절을 추구했던 기획이 결국 제도의 포섭 속에서 무력화되었다고, 공허한 미적 알리바이로 환원되었다고 여겨진다. 이 같은 아이러니 속에서 혁명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도는 제도적 허구성으로 귀결되고 마는 이중적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이 ‘실패’의 개념은 다시 사고 된다. 애초에 아방가르드가 부르주아의 지지와 명확한 역사적 의식을 전제로 전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무력화나 제도적 편입은 단순한 좌절이라기보다 자기 속성의 일부였던 것은 아닐까. 극단적으로 말해, 이른바 ‘실패’는 오히려 아방가르드를 지속시키는 동력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아방가르드의 역사는 단순한 성공과 실패의 도식으로 환원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자기 파괴와 제도적 포섭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긴장과 역설 속에서 비로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인세인박의 이번 개인전 《아방가르드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제목에서 드러나듯 아방가르드의 실패와 좌절을 분명히 인지한다. 그렇다면 전시에서 그 실패는 어떻게 드러날까, 또 무엇을 포기하지 않고 있을까. 작가는 아방가르드의 성패를 단순히 목표 달성 여부로 가늠할 수 없다고 전제한다. 오히려 최초 설정된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 곧 실패(의 흔적) 자체를 아방가르드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단초로 삼는 듯하다. 이와 관련해 작가는 자신의 작업 노트에 2017 년 유럽 방문 경험을 상세히 기록한다. 오래된 건물 외벽을 뒤덮은 끝없는 낙서와 그래피티의 행렬은, 마치 반달리즘으로 세워진 도시와도 같은 인상을 남긴다고, 그리고 그 흔적은 단순한 파괴의 결과가 아니라고 적는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지우고 다시 쓰려는 욕망이 뒤엉킨 도시의 일부였고, 과거의 실패가 아닌 현재 진행 중인 풍경으로 다가왔다고 말한다. 작가는 시간을 관통해 남겨진 낙서들 속에서 실패로 단정할 수 없는 전위적 생명력을 포착했을지도 모른다. 실패와 성공, 파괴와 창조의 경계가 분리되지 않은 채 얹혀 있는 장면에서 아방가르드적 언어가 여전히 전복적 가능성을 지닌다고 본다. 다시 말해, 성취되지 못한 외침과 그 흔적을 여러

질서와 욕망의 틈새에서 발생하는 얽힘의 장면으로 마주하며, 이를 여전히 지속 가능한 현재의 장면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렇게 작가는 아방가르드적 가치, 혹은 그 실패의 개념을 재고하며, 그것을 도시의 맥락 속에서—때로는 시간과 공간을 망상적으로 가로지르며—새롭게 경험하려 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전시는 서로 다른 조건과 질서가 얽혀 있는, 때로는 상호 충돌하고 배반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예컨대 《아마추어 반달러를 위한 일회용 마스크》(2025)는 반달러들이 착용하는 마스크가 인쇄된 비닐봉지 10,000 장을 제작해, 갤러리 공간에 설명서와 함께 설치하고 배포한다. 이어 제작된 《아마추어 반달러를 위한 키트》(2025)는 종이 상자 안에 비닐, 스프레이, USB 등을 구성하여, 반달리즘이라는 체제 부정적 행위가 하나의 패키지로 소비·전시·소장되는 아이러니한 장면을 연출한다. 이 과정에서 파괴의 충동조차 상품화되어 제도 안에 편입되는 모습은,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는 전복적 열망과 반달리즘적 행위의 한계와 모순을 동시에 드러낸다. 급진적 행위를 위한 도구들이 썰렁한 농담처럼, 혹은 자기모순적 자폭의 장면처럼 전시되는 것이다. 작가는 바로 이러한 자기 해체적 장면을 통해서 아방가르드적 상상이 여전히 유통될 수 있는지, 그렇게라도 체제 부정의 행위가 지속될 수 있는지 묻는다. 그것은 일방향적 실천이 아니라, 제도와 체계에 기생하며 스스로의 불능을 고백하고, 동시에 그 가능성을 끈질기게 상기시키려는 시도로 다가온다.

또한 작가는 갤러리에 그래피티 낙서를 하는 등 공간 일부를 훼손한 것처럼 연출한다. 그래피티와 반달리즘적 행위를 미술의 형식과 공간으로 끌어온다는 설정은 파괴의 충동과 전복적 에너지가 미술 형식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진짜'와 '가짜'의 경계 한가운데 작업을 위치시킨다. 작가는 이러한 상황이 전시를 위해 고안된 일종의 모조품, 곧 '가짜 아방가르드'에 해당하는지 자문한다. 동시에 그것이 단순한 위장이나 표면적 재현에 머무르지 않고 전복적 욕망을 내포한 또 다른 실천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는 제도를 실제로 붕괴시키기보다는 제도 내부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장치들을 구성하는 행위와 함께한다. 결국 작업은 역사적 아방가르드가 경험했던 실패의 장면을 재현하는 동시에,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변주되어 작동하는 국면을 모색한다. 따라서 '가짜'라 불릴 수 있는 이러한 실천은 단순한 위장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 허위임을 자각한 채 실패의 일부처럼 존재한다. 실제 파괴가 불가능해진 시대에 허구적 시도가 현실의 표면을 흔들고, 감각과 상상력을 자극하며, 기존 질서와 권위의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는지 탐색한다. 전시는 반달리즘을 상품과 설정, 작품으로 대체하며 모종의 균열과 상상적 장면을 형성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더욱 분명하고 날카로운 가짜/실패'의 가능성을 인지하려 한다.

실패와 허위 안에 스스로 위치하려는 시도는 전시에 포함된 일련의 영상 작업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예컨대 2022 년작 《포스트 반달리즘(Post Vandalism)》에서 작가는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의 실내외를 붉은 스프레이로 훼손한 듯 연출하고, 미술관 입구에는 '반달리즘 인세인박 개인전(Vandalism: Insane PARK Solo Exhibition)'이라는 가상의 배너를 설치한다. 미술관 외벽에는 '아티스트 피(Artist Fee)'를 '아티스트 피(Artist Pee)'로 비튼 낙서와 '모든 예술은

프로파간다다' 등의 문구를 덧입힌다. 2024 년 태국 레지던시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대나무와 흰 천으로 제작한 배너 위에 그래피티처럼 스프레이 낙서를 덧입히고, 방콕 예술문화센터(BACC)를 훼손하는 가상의 영상 《포스트 반달리즘(BACC) (Post Vandalism (BACC))》(2024)을 선보인다. 또 《버닝 다운 더 뮤지엄(Burning Down the Museum)》(2022)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화염에 휩싸인 장면을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형식으로 가상 연출한다. 일련의 작업들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제도의 안전성과 권위를 동시에 해체한다. 나아가 반달리즘이 지닌 폭력성과 전복적 성격을 농담, 사회적 소통, 혹은 허구적 시스템으로 전치함으로써, 파괴적 행위가 당대적 조건 속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사고한다.

작가의 작업은 실패를 넘어서는 '가짜'의 허위성을 적극 끌어안는다. 파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도적 틀 안에서 허용된 실험에 머물며, 위태로움과 무력함을 동시에 자각한다. 작가는 바로 이 위태로운 허위성 속에서 전위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듯하다. 실질적 전복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시대에, 상상적 허구를 현실의 표면 위에 강제로 덧입히는 행위야말로 오늘날 취할 수 있는 하나의 급진성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은 추상적 가상성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구체적 장소와 조건에 의존하며 모종의 현실성을 포섭하려 한다. 낙서는 벽 위에서만 가능하고, 균열은 구조 위에서만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드러낸다. 그렇게 일회용 마스크와 키트,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편집된 가상의 영상들은 공허한 연출이 아니라, 물질적·제도적 구체성 속에서 생명력을 얻는다. 여기서 작업은 단순한 파괴나 완전한 창조가 아닌, 오늘을 조건을 인지하고 그 위에 아방가르드적 균열을 표지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반복되는 시도, 파괴의 불가능성을 알면서도 그것을 가장하는 몸짓, 허구를 자처하면서도 그 너머를 상상하는 시도를 결집한다. 이러한 반복적 실패 속에서 오래된 선언은 다시 확인된다. 그렇게 작가의 아방가르드는 포기하지 않는다.

7. 작가약력

인세인 박

1980년 포천 출생

포천에서 거주하며 작업

학력

2008 경기대학교 서양화과 학사

개인전

- 2025 아방가르드는 포기하지 않는다,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 2020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 2018 섹지비션, 아라리오뮤지엄 동문모텔 II, 제주, 한국
- 2017 포르노 제작을 위한 습작, M17, 파주, 한국
- 2015 여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아트 프로젝트 CZ, 상하이, 중국
- 2014 에트로 미술상: 언포트레이트, 백운갤러리, 서울, 한국
 디렉터스 컷,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 2012 블레임 게임, 영은미술관, 경기도 광주, 한국
- 2011 M.IDEA,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 2009 미디어의 습격, 신한갤러리, 서울, 한국

주요 단체전

- 2025 도망간 신: 메클롱강에서 한탄강까지, 반월아트홀, 포천, 한국
- 2024 공중부양, 반월아트홀, 포천, 한국
 포스트 반달리즘 [BACC] 2024, 반누르그코뮤랩, 랏차부리, 태국
- 2023 일시적 기록, 신읍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II, 포천, 한국
 다시, 새가 날아든다,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 수원, 한국
 틈입자, 마테리오 갤러리, 서울, 한국
 판타지 아일랜드, 트라이보울, 인천, 한국
- 2022 현상의 현상, 복합문화공간 어가길, 포천, 한국
 투 썸 #3 - 노이즈, 갤러리 아팅, 서울, 한국
 낮선 만남,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서울, 한국
 행궁유람 행행행, 수원시립미술관, 수원, 한국
- 2021 고독한 플레이어, 대안공간 루프, 서울, 한국
 인터스페이스 프로젝트 - 경산, 보물섬, 경산, 한국
 경계의 회복 - 지금 여기, 아트센터 고마, 공주, 한국
 다크사이드 오브, 봉산문화회관, 대구, 한국
 13 번째 망설임,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천안, 한국
- 2020 예외상태, 보안여관, 서울, 한국
 잘못 보이고 잘못 말해진, 행화탕, 서울, 한국
- 2019 인터내셔널 아트 페스티벌: 리믹싱 그라운드, 라 샤펬 드 클레르퐁텐, 생모르데포세, 프랑스
- 2018 캠프그리브스 DMZ 평화정거장 사업 예술창작전시, 캠프그리브스 DMZ, 파주, 한국
- 2017 이면 탐구자_Inside Out, 경기도미술관, 안산, 한국

- 계단,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엘리베이터, 선광미술관, 인천, 한국
수줍은 본능, 갤러리 수, 서울, 한국
별의 별,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한국
불완전한 인간, 우리미술관, 인천, 한국
2016 헬로, 마이 프렌드, 아르크미술관 스페이스 필룩스, 서울, 한국
지나치게 감상적인 : W/M, 스페이스 xx, 서울, 한국
식물유랑, 수원미술전시관, 수원, 한국
프롤로그 2016, M17, 파주, 한국
60 초 예술, 사비나미술관, 서울, 한국
트랜스, 아키요시다이 국제예술창작촌, 일본
메이크업 TOP10, M17, 파주, 한국
2015 우산과 부채, 경기창작센터, 안산, 한국
슈퍼전파: 미디어바이러스,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한국
은밀하게 황홀하게, 문화역서울 284, 서울, 한국
포스트 픽처스, 갤러리 175, 서울, 한국
2014 섹스+길티 플레저, 아마도예술공간, 서울, 한국
세네갈 다카르 비엔날레, 다카르, 세네갈
모노그램, 스페이스 15th, 서울, 한국
2013 생생화화, 경기도미술관, 안산, 한국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위쇼디니아 갤러리, 폴란드
공감. 공유. 공존의 미학, 영은미술관, 경기도 광주, 한국
바나나와 나,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천안, 한국
2012 아티스트 위드 아라리오 파트 3,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대구예술발전소 수창동에서 미술의 생기,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한국
2011 티핑 포인트, 관훈갤러리, 서울, 한국
제 2 회 국제예술전: 더 파워 오브 아트_피플, 영은미술관, 광주, 한국
2010 통과 의례: 네 가지 거짓말, 수원시미술전시관, 수원, 한국
2009 이안, 인세인 박, 쇼난다이 MY 갤러리, 도쿄, 일본
미술과 놀아: 아트 인 슈퍼스타, 예술의전당, 서울, 한국
2008 통과 의례, 수원시미술전시관, 수원, 한국

레지던시

- 2024 반누르그 컬래버러티브 아트앤컬처, 랏차부리, 태국
2016-17 스튜디오 M17, 메이크업 아트스페이스, 파주, 한국
2016 아키요시다이 국제예술창작촌, 야마구치, 일본
2015-16 경기창작센터, 안산, 한국
2011-13 영은창작스튜디오 8 기 입주 작가, 영은미술관, 경기도 광주, 한국

수상

- 2013 제 2 회 에트로 미술상 대상, 에트로, 한국
2008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 한국

소장

- 아라리오뮤지엄, 한국

ARARIO GALLERY SEOUL

Insane PARK

Avant-Garde Does Not Surrender

Installation view of *Insane PARK: Avant-Garde Does Not Surrender* at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5.

Artist : Insane PARK (b. 1980, Korea)
Title : Avant-Garde Does Not Surrender
Dates : 16 Oct – 6 Dec 2025
Venue : ARARIO GALLERY SEOUL (85 Yulgok-ro, Jongno-gu, Seoul, Korea) B1F
Artworks : 13 Artworks in total (video, installation, print, etc.)

[Artwork images and Installation view]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WOOJWALz2YZcLGHZFafrrS6lmbUgDxT2?usp=drive_link

[Inquiry]

ARARIO GALLERY SEOUL | E. info@arariogallery.com

Miran PARK, Deputy Director | E. miran.park@arariogallery.com

Boyoung HWANG, Associate | E. boyoung.hwang@arariogallery.com

Table of Content	1. Exhibition Overview	----- 2
	2. Exhibition Theme	-----
	3. Artworks	2-3
	4. Installation View	-----
	5. Artist Introduction	3-4
	6. Essay	----- 4

7. Artist CV

5

5-6

8-9

1. Exhibition Overview

ARARIO GALLERY SEOUL presents ***Avant-Garde Does Not Surrender***, a solo exhibition by **Insane PARK** (b. 1980, Korea), on view from October 16 (Thu) to December 6 (Sat), 2025. PARK has long explored the realm of media and images, consistently creating works that reveal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visual systems and the modes of perception we often take for granted. By analyzing and deconstructing repeatedly circulated and fixed images, he presents works that candidly expose both the essence and limitations of human cognition and thought as mediated through the act of “seeing.” Working fluidly across video, installation, painting, and photography, his practice extends beyond formal experimentation to subversively uncover the political and cultural structures that shape contemporary society.

2. Exhibition Theme

In this exhibition, PARK reawakens the avant-garde attitude through the perspective of vandalism. While vandalism may be a self-contradictory and rebellious act, it is also a movement that negates existing systems and generates new perspectives and discourses. Through works in the form of fictitious documentaries created with digital technology, motion graphics, and live-streaming formats reminiscent of social media, PARK continues his experiments dismantling the authority and safeguards of institutional art. For PARK, graffiti layered onto decaying buildings and messages scattered across artworks are not simply acts of destruction, but gestures of resistance against authority and oppression. He regards acts of scribbling and defacement as processes of redefinition—disrupting existing orders and hierarchies while simultaneously infusing them with new meaning. In doing so, PARK confronts the futility, emptiness, and fragility of reality, yet refuses to remain in despair. Instead, he focuses on humor, self-contradiction, and the act of doing itself, seeking minimal fissures and sparks of articulation that art can still generate. The messages directly inscribed onto the gallery walls and works are extensions of this attitude; like graffiti on urban surfaces, his images speak from within the cracks of the system.

Presented on the basement floor of ARARIO GALLERY SEOUL, this exhibition questions the possibilities of resistance through art, exploring the ambivalent forces of destruction and creation, authority and defiance that emerge through vandalism. While revealing the irony of vandalism operating within the system itself, it nonetheless embodies a belief that art still possesses the potential to act. From earlier works such as *Post Vandalism* (2022), which covered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the Seoul Museum of Art, Nam Seoul Branch with

graffiti, and *Burning Down the Museum* (2022), depicting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n flames, to new pieces unveiled for this exhibition—including the large-scale multi-channel video installation *Burning Down the Galleries* (2025), *Disposable Mask for Amateur Vandals* (2025), and *Disposable Mask for Amateur Vandals: INSTRUCTION MANUAL* (2025)—the show offers a comprehensive view of PARK's ongoing artistic stance and his latest experiments. *Burning Down the Galleries* is an installation that presents a performance video in which the word "Galleries" is filled with matchsticks and set on fire. The video begins with igniting the word "Lies," meaning falsehood, and continues as the entire set of letters sequentially burns down. Through this work, PARK explores the tension between destruction and creation, revealing a new experimental dimension while extending his established artistic attitude.

3. Artworks

[*The high-resolution images can be downloaded via the Google Drive link provided on the first page.](#)

[*When using artwork images, please include the following copyright credit: ©2025. Insane PARK. Courtesy of the Artist 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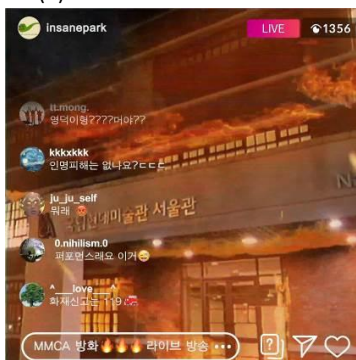
[Arario Gallery.](#)

Featured Images



Insane PARK
Amateur Vandal Kit
2025

Spray can, printed paper (manual & packaging), USB,
plastic bag
21 x 29.7 x 7(h) cm



Insane PARK
Burning Down the Museum
2022

DISPOSABLE MASK FOR AMATEUR VANDALS: INSTRUCTION MANUAL



Insane PARK

Disposable Mask for Amateur Vandals: INSTRUCTION MANUAL

2025

Digital print on paper, framed
100 x 75 cm



Insane PARK
Amateur Vandal Kit
2022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00'55"



Insane PARK
YES, SYSTEM
2024
Neon
40 x 37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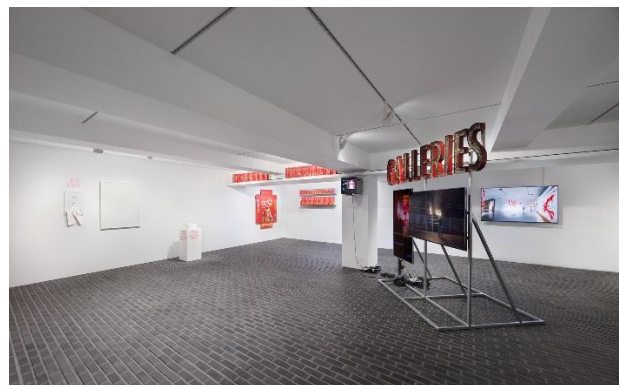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04'17"



Insane PARK
Post Vandalism (BACC)
2024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04'48"

4. Installation View

*The high-resolution images can be downloaded via the Google Drive link provided on the first page.



Installation view of *Insane PARK: Avant-Garde Does Not Surrender* at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5.

5. Artist Introduction



Insane PARK has held solo exhibitions at various institutions including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5; 2020; 2014; 2011), ARARIO MUSEUM DONGMUN MOTEL II (Jeju, Korea, 2019), M17 (Paju, Korea, 2017), Art Project CZ (Shanghai, China, 2015), and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ngju, Gyeonggi-do, Korea, 2012). He also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at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Suwon Museum of Art (Suwon, Korea), Gyeongnam Art Museum (Changwon, Korea), NamJune Paik Art Center (Yongin, Korea), Savina Museum (Seoul, Korea), Kyonggi University Sosung Museum (Suwon, Korea), Alternative Space Loop (Seoul, Korea), Art Space Boan 1942 (Seoul, Korea), and more. He participated in a residency at Baan Noorg Collaborative Arts and Culture (Ratchaburi, Thailand) in 2024, Studio M17 (Paju, Korea) from 2016 to 2017, Akiyoshidai International Art Village (Yamaguchi, Japan) in 2016,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from 2015 to 2016,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ngju, Gyeonggi-do, Korea) from 2011 to 2013, and won Grand Prize of The 2nd ETRO Art Prize in 2013.

6. Essay

Avant-Garde Does Not Surrender

Kwon Hyukgue, Curator

The term avant-garde primarily evokes a radical departure from and disconnection from a certain established domain. In the context of modern art, it signifies an effort to move beyond academicism that interprets the present through precedents, as well as a refusal to conform to predictable relationships with the audience. It also resists complete absorption into institutional frameworks, avoids submission to contemporary trends, and seeks to remain in a state of incomprehensibility. Ironically, this very stance came to be regarded as a core condition that affirmed the purity and autonomy emphasized by modernist art.

At the same time, such endeavors are often deemed failures. The historical avant-garde is said to have betrayed, rather than realized, its fundamental task of integrating art and life, losing its subversive potential by being absorbed into rigid institutions—whether through purist aesthetics or the mechanisms of capital and the market. The project that once sought radical rupture ultimately became neutralized within institutional frameworks, reduced to an empty aesthetic alibi. Within this irony, the pursuit of revolutionary possibility finds itself caught in a paradoxical position, where it inevitably returns to institutional fiction it had sought to transcend.

The notion of this “failure,” however, can be reconsidered. Given that the avant-garde initially developed on the basis of bourgeois support and a clear historical consciousness, its eventual neutralization or institutional absorption might not simply be seen as a setback, but rather as an inherent aspect of its very nature. To put it radically, could this so-called “failure” have in fact been the very force that sustained the avant-garde itself? If so, the history of the avant-garde may not be reducible to a simple dichotomy of success and failure, but rather understood through the recurring tensions and paradoxes that emerge between self-destruction and institutional assimilation.

As its title suggests, Insane PARK’s solo exhibition *Avant-Garde Does Not Surrender* fully acknowledges the failures and frustrations of the avant-garde. How, then, within this exhibition, does this sense of failure manifest—and what, precisely, refuses to be abandoned? The artist begins with the premise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avant-garde cannot be measured merely by whether it has achieved its original goals. Rather, the very fact of having failed to fulfill those initial aims—the trace of failure itself—seems to serve as a point of departure for reaffirming avant-garde values. In this regard, PARK’s artist’s statement recounts in detail his travels through Europe in 2017. He describes his encounter with the endless graffiti and scribbles covering the facades of old buildings, leaving the impression of a city built upon vandalism. Yet, he notes, these marks are not merely the aftermath of destruction. They are instead, part of a city interwoven with desires to erase and rewrite—an ongoing landscape rather than a relic of the past. Within these layered inscriptions that transcend time, the artist may have perceived a form of avant-garde vitality that cannot be easily dismissed as failure. In the interwoven scenes where the boundaries between failure and success, destruction and creation, remain inseparable, PARK locates the continued subversive potential of the avant-garde. In other words, by confronting unfulfilled cries and their lingering traces as scenes of entanglement emerging in the gaps between multiple orders and desires, the artist transforms them into moments of the present; moments still capable of endurance. In doing so, PARK reconsiders the avant-garde ideal, or rather the very notion of its failure, seeking to experience it anew within the urban context—at times traversing time and space in a visionary or hallucinatory manner.

In the same vein, this exhibition comprises a series of works that intertwine different conditions and orders—sometimes colliding with or contradicting one another. For instance, *Disposable Mask for Amateur Vandals* (2025) consists of 10,000 plastic bags printed with images of masks worn by vandals, installed and distributed in the gallery space alongside an instruction sheet. The subsequent work, *Amateur Vandal Kit* (2025), assembles vinyl sheets, spray paint, and a USB drive inside a paper box, staging an ironic scene in which vandalism—an act of resistance against the system—is itself packaged, consumed, exhibited, and collected. In this process, even the impulse toward destruction becomes commodified and absorbed into the institution, exposing the contradictions and limits of subversive desires and vandalistic gestures observed across the world today. The tools of radical action are displayed like a dry joke, or as scenes of self-contradictory self-destruction. Through these self-dismantling gestures, the artist questions whether avant-garde imagination can still circulate, and whether acts of defiance can persist, even in this compromised form. It is not a unidirectional practice, but rather an attempt to parasitize the very systems it resists—confessing its own impotence while persistently recalling the possibility of resistance.

PARK also stages the gallery space as if parts of it had been damaged—by inscribing graffiti directly onto the walls and surfaces. This gesture of bringing graffiti and acts of vandalism into the formal and spatial domain of art exposes with striking clarity how the impulse toward destruction and subversive energy are ultimately absorbed into artistic form, situating the work precisely on the boundary between the “real” and the “fake.” The artist questions whether such a situation constitutes a kind of

imitation devised for the sake of exhibition—a “fake avant-garde.” At the same time, he questions whether it might move beyond mere disguise or superficial representation to become another form of practice imbued with subversive desire. This approach is accompanied by acts that, rather than collapsing the institution itself, construct mechanisms that can only function within it. Ultimately, the work both reenacts the scenes of failure experienced by the historical avant-garde, and seeks new phases in which those failures are reconfigured and made to operate in different ways. Thus, such practices—though they might be called “fake”—do not remain as mere disguises. Rather, they exist as if they themselves were part of the failure, consciously aware of their own falsity. In an era where actual destruction has become nearly impossible, PARK explores whether these fictional gestures can still unsettle the surface of reality, stimulate the senses and imagination, and expose the fragility of existing orders and authorities. The exhibition replaces acts of vandalism with commodities, constructed situations, and artworks, thereby creating subtle fissures and imagined scenes—where the potential for a “clearer, sharper kind of fake or failure” comes into view.

The attempt to situate oneself within failure and falsity becomes even more pronounced in the series of video works included in the exhibition. In *Post Vandalism* (2022), for example, the artist stages scenes that appear to show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the Seoul Museum of Art, Nam-Seoul branch, defaced with red spray paint. At the museum entrance, he installs a fictitious banner reading “Vandalism: Insane PARK Solo Exhibition.” On the exterior walls, graffiti such as the wordplay “Artist Fee” turned into “Artist Pee,” along with slogans like “All Art is Propaganda” are superimposed. In the 2024 Thailand residency, the PARK collaborated with local residents to create a banner made of bamboo and white fabric, onto which graffiti-like spray paint was layered. The resulting work, *Post Vandalism (BACC)* (2024), is a fictional video depicting the act of defacing the Bangkok Art and Culture Centre (BACC). In another work, *Burning Down the Museum* (2022), the artist virtually simulates a scene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engulfed in flames, presented in the format of an Instagram Live broadcast. This series of works dismantles both the security and authority of institutional systems within a digital environment. Furthermore, by translating the violence and subversive character of vandalism into humor, social communication, or fictional systems, the artist reflects on how acts of destruction might continue to exist under contemporary conditions.

The artist’s work actively embraces the falsity of the “fake,” moving beyond the notion of failure. Though it may appear destructive, it ultimately remains an experiment permitted within institutional boundaries—fully aware of its own fragility and impotence. It is precisely within this precarious falsity that the artist seems to seek avant-garde potential. In an era when genuine subversion is deemed impossible, PARK believes that the very act of forcibly overlaying imaginative fictions onto the surface of reality constitutes one of the few radical gestures still available today. Yet this practice does not remain within the realm of abstract virtuality. On the contrary, it depends on specific sites and conditions, attempting to absorb a certain degree of reality. The work makes clear that graffiti can exist only upon a wall, and that fissures can occur only within a structure. In this way, disposable masks and kits, Instagram Live broadcasts, and edited fictional videos become not empty stagings but embodiments that acquire vitality within material and institutional specificity. Here, the work may be understood not as pure destruction or complete creation, but as an attempt to recognize today’s given conditions and inscribe within them a trace of avant-garde rupture. This exhibition gathers gestures of repeated attempts made in full awareness of their inevitable failure, acts of simulated destruction despite knowing its impossibility, and practices that declare their fictionality yet still imagine beyond it. Within these cycles of recurring failure, an old declaration is once again affirmed: thus, the artist’s avant-garde does not surrender.

7. Artist CV

Insane PARK

Born in 1980, Pocheon, Korea

Lives and works in Pocheon, Korea

Education

2008 BFA Fine Art, Kyonggi University, Seoul, Korea

Solo Exhibitions

- 2025 Avant-Garde Does Not Surrender,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 2020 I Have No Idea, Because I Have No Idea,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 2018 Sexhibition, ARARIO MUSEUM DONGMUN MOTEL II, Jeju, Korea
- 2017 Making Film: PORN, M17, Paju, Korea
- 2015 Summer's Never Coming Again, Art Project CZ, Shanghai, China
- 2014 Etro Art Prize, Baekwoon Gallery, Seoul, Korea
Director's Cut,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 2012 Balme Game,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ngju, Gyeonggi-do, Korea
- 2011 M.IDEA,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 2009 Raid on Media, Shinhan Gallery,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25 The Vanished Gods: From Maeklong to Hantangang, Banwol Art Hall, Pocheon, Korea
- 2024 Levitation, Banwol Art Hall, Pocheon, Korea
Post Vandalism [BACC] 2024, Baannoorg Commulab, Rachaburi, Thailand
- 2023 Temporary Record, Urban Regeneration Eoullim Center, Sineup-dong, Pocheon, Korea
Again, the Bird Flies In, Kyonggi University Sosung Museum, Suwon, Korea
Mx. Intruder, Materiaux Gallery, Seoul, Korea
Fantasy Island, Tribowl, Incheon, Korea
- 2022 Phenomenon of Phenomenon, Art Space Egagil, Pocheon, Korea
Two Some #3 – Noise, Gallery Arting, Seoul, Korea
Rendezvous,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Seoul, Korea
Haenggung-dong: A Village Alive with Art, Suwon Museum of Art, Suwon, Korea
- 2021 A Players, Alternative Space Loop, Seoul, Korea
Interspace Project – Gyeongsan, Bomulsum, Gyeongsan, Korea
Restoration of Boundaries, Now-Here, Art Center GOMA, Gongju, Korea
Dark Side Of, Bongsan Cultural Center, Daegu, Korea
The 13th Hesitation, ARARIO GALLERY CHEONAN, Cheonan, Korea
- 2020 Exception, Art Space Boan 1942, Seoul, Korea
Mal vu mal dit, Haenghwatang, Seoul., Korea
- 2019 International Art Festival: Remixing Ground, La Chapelle de Clairefontaine, Saint Maur des Fossés, France
- 2018 Camp Greaves DMZ Peace Platform, Camp Greaves DMZ, Paju, Korea
- 2017 Inside Out, Gyeonggi Museum of Art, Ansan, Korea
Stairs, Escalators, and Elevators, Sunkwang museum, Incheon, Korea
Bashful Instinct, Gallery SU:, Seoul, Korea
Stars of Stars, Gyeongnam Art Museum, Changwon, Korea

- 2016 Incomplete Human, Woori Art Museum, Incheon, Korea
Hello, My Friend, Arko Art Center, Seoul, Korea
W/M, Space xx, Seoul, Korea
Suwon Museum of Art, Suwon, Korea
Prologue 2016, M17, Paju, Korea
60 Sec Art, Savina Museum, Seoul, Korea
TRANS, Akiyoshidai International Art Village, Japan
Makeshop Top 10, M17, Paju, Korea
- 2015 Umbrella and Fan,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Super Spreader: Media Virus, NamJune Paik Art Center, Yongin, Korea
Culture Station Seoul 284, Seoul, Korea
POST pictures, Gallery 175, Seoul, Korea
- 2014 SEX+Guilty Pleasure, Amado Art Space, Seoul, Korea
Dakar Biennale, Dakar, Senegal
Monogram, Space 15, Seoul, Korea
- 2013 The Breath of Fresh,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W Imię Ojca? W Imieniu Matki!, Wschdnie Gallery, Poland
Sympathy, Share, Coexistence,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ngju, Gyeonggi-do, Korea
- 2012 Artists with ARARIO Part 3,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Manner & Landscape, Daegu Art Factory, Daegu, Korea
- 2011 Tipping Point, Kwanhoon Gallery, Seoul, Korea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The Power of Art_People,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ngju, Korea
- 2010 Relay Presentation: Four Lies, Suwon Art Gallery, Suwon, Korea
- 2009 Ian, Insane Park, Shonandai MY Gallery, Tokyo, Japan
Art and Play: Art in Superstar, Seoul Art Center, Seoul, Korea
- 2008 Relay Presentation, Suwon Art Gallery, Suwon, Korea

Residencies

- 2024 Baan Noorg Collaborative Arts and Culture, Ratchaburi, Thailand
- 2016-17 Studio M17, Makeshop Art space, Paju, Korea
- 2016 Akiyoshidai International Art Village, Yamaguchi, Japan
- 2015-16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1-13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ngju, Gyeonggi-do, Korea

Awards

- 2013 Grand Prize, The 2nd ETRO Art Prize, ETRO, Korea
- 2008 Shinhan Young Artist Festa, Korea

Collections

ARARIO MUSEUM, Korea